

새로운 세기를 향한 비옥한 자양

— 《출판저널》만의 자리

김병익

문학평론가 · 문학과지성사 대표

《출판저널》이 창간되던 10년 전만 해도, 출판인들만이 아니라 학자·문학인·예술가 등 저자들과 지식인들 모두가 것처럼 간곡하게 바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출판과 도서에 관한 매스컴의 할애는 치사스러울 정도로 빈약했다. 방송이나 텔레비전은 책에 대해 아예 관심이 없었고 신문은 그저 채면치레였으며 잡지들은 짝막한 소개로 만족했고 전문지들이 약간의 지면을 내주었다. 있다면, 출판협회가 발행하는 기관지와 한 출판인 그룹이 만든 계간지 정도였는데, 그나마 일반독자용이 아닌 앞의 것은 출판계 정보 외의 도서 정보는 목록 게재만이었고, 뒤의 것은 본격적인 서평이 없었지만 경영의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여 단명했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던 재갈이 풀리면서, 그리고 《출판저널》이 창간되면서부터 잡자기 신문 방송 잡지들은 책에 대한 지면과 시간들을 대폭 늘렸다. 텔레비전과 라디오는 매주 정한 시간에 신간 소식을 전하고 신문들은 출판면과 서평란을 따로 만들고 갖가지로 쏟아져나온 잡지들은 그 성격에 따라 신간란 또는 서평란을 설치했다. 게다가 출판사, 서점 및 유통업체들이 자체 제작 관리하는 도서들의 홍보 또는 정보 잡지들을 간행하기 시작했다. 이상할 정도로 갑작스레 책에 대한 정보 과잉이다싶게 출판문화는 매스컴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사정이 이렇게 좋아졌다 해서 그러나 《출판저널》의 의미와 평가가 결코 줄어들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것의 10주년 기념호를 맞으면서 더욱 분명해진다. 우선, 그것이 거의 유일한 종합 도서전문지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신문과 잡지, 방송이 갖고 있는 서평란, 신간란의 분량이 아무리 많고 그 영향이 크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그 매스컴이 다루는 많은 부문의 한 종목일 뿐이며 그래서 책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그치지지만, 전문지로서의 《출판저널》은 오직 책만을 주종으로 하여 책을 '통해' 문화와 사상, 현실과 세계를 바라보게 한다는 특성을 갖는다. '책에 관하여'라는 것과 '책을 통하여'라는 것은 그것의 사유와 수용에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면서 한 나라 출판문화의 성숙도를 재는 가능자가 되는 것이다.

더구나 《출판저널》은 다른 매체들이 무책임하게 소개하는 것에 비해, 분야별로, 수준별로, 성격별로 우리의 책들을 분류, 평가해 준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문화는 피라미드형으로 구조되어 있어서 어차피 그 질의 높이와 양의 추세로 스크린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매스컴 현장에서 보자면 책에 관한 한 그 작업은 오로지 이 잡지만이 적절하게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책이 어느 만큼의 학술적, 문화적 의미와 평가를 갖는가를 아는 것은 아마도 이 《출판저널》을 통하는 것이 가장 공정할 듯한데, 이 잡지의 이러한 기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출판 시장은 크지만 그 자체에 대한 문화적 평가 작업은 상대적으로 무척 약한 상태에서 《출판저널》이 이처럼 큰 몫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 발행 주체가 공공의 재단이라는 점, 그래서 수지타산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덕분일 것이다. 우리의 어느 잡지보다 체제에 있어서나 편집에 있어 화려하면서도 세련된 이 잡지가 갖는 그같은 자신들이 앞으로의 정보화사회, 문화대국을 향해 해야 할 일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이 잡지에 대한 투자는 큰 눈으로 격려되어야 할 것이고 거기서 얻어낼 효과는 한국의 새로운 세기의 창출이란 시각에서 높이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다음의 10주년에 든든하게 확인하게 될 것이다. ❖

기획 취재	2	문화적 생명력 길러온 우리 서평지
	4	'깊이'와 '가벼움' 사이에 선 일본 서평지 - 백원근
창간 10주년 기념 지상포럼	6	책은 창조적 상상력의 텍스트인가 - 이중한
	8	책의 운명 - 김영민
	10	뉴미디어 시대의 출판미학 - 정병규
	12	21세기 후손에게 종이책의 추억을 - 김영범
특집/책이 있는 공트	18	약속 - 박덕규
	19	슬픈 책벌레들 - 최성각
	20	오렌지맛 오렌지 - 성석제
	21	어느 여름날의 출장기 - 이승우
신간읽기	22	《밀레니엄》《서기 1000년과 서기 2000년, ...》을 읽고 - 이연규
출판화제	23	다양한 쟁론 일으키는 인물비평
	24	'디자인'에서 이 시대 문화현상을 읽는다
세미나	25	출협 주최 제18회 출판경영자 세미나 요지
화보	30	《출판저널》 10년의 얼굴
통계	32	그래픽으로 보는 10년의 출판
서평	34	소재영 《조선조문학의 탐구》 - 우쾌제
		임재해 《한국민속학과 현실인식》 - 장장식
	35	최봉영 《조선시대 유교문화》 - 고영진
	36	헌팅턴 《문명의 충돌》 - 김중엽
		권택영 《다문화시대의 글쓰기》 - 한원근
	37	마이애스 외 《개말이나, 보전이나》 - 홍옥희
이 책 그 사람	38	《한국의 가람》 펴낸 홍윤식씨
		《그 여자, 입구에서 기만히 ...》 펴낸 김정란씨
	39	《꿈속에서 기어나오고 싶지 않은 날》 펴낸 김철순씨
	46	새책 속으로 / 50 새로 나온 책
	60	책의 문화유산 ⑭
		표지/한준호

알림

본지 8월 5일자 쉽니다

《출판저널》은 여름철 정례휴가에 따라
8월 5일자는 쉬고, 8월 20일자로 제219호를 발행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제218호(7월 20일자)는 창간
10주년 기념호로 60면으로 증면 발행함을
알려드립니다.